

현대차그룹, '협력사 상생' 180곳 스마트공장 구축 돕는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
올 50억 투입 ‘고도단계 구축’ 지원
지난 2년간 협력사 품질 30% 개선

현대자동차그룹이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확대에 팔을 걷어붙였다.

현대차그룹은 1일 중소벤처기업부,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스마트제조 혁신추진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올해 총 180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공장은 제품기획에서 설계, 제조, 공정,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생산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생산시스템을 최적화한 공장이다. ICT 활용 정도에 따라 기초-중간1-중간2-고도 단계로 구분된다.



현대기아차 양재동 본사.

현대차그룹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해 지난 2019년과 2020년 총 480여개 협력사가 기초 및 중간 단계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1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에는 고도 단계의 스마트공장 구축까지

지원을 확대, 총 180개사에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스마트공장 전문가와 함께 업체에 대한 경영진단에 나선 후 ▲초중종물 검사시스템(작업공정의 초물, 중물, 종물을 샘플링해 검사한 측정 결과를 전산화해 관리하는 시스템) ▲풀-프루프 시스템(작업자가 야기할 수

있는 실수나 불량률 자동으로 검출해 알람이나 설비 정지 등으로 조치해주는 시스템) ▲롯트(LOT·1회에 생산되는 특정 수의 제품 단위 또는 묶음을 표시하는 번호) 추적관리 시스템 ▲금형관리 시스템 ▲품질확인 시스템 등을 기초 단계의 스마트공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중간 및 고도화 단계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협력사에는 ▲생산 공정관리 시스템 ▲전사 자원관리 시스템 ▲공급망 관리 시스템 ▲제품 수명주기 관리 시스템 등이 적용된다.

스마트공장 시스템은 지난 2년간 현대차그룹의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으로 전환된 협력사를 대상으로 품질 경쟁력이 검증됐다. 지난해 참여기업 209개사의 경우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납기 개선 등의 성과 지표가 평균 30% 가량 개선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19년 중소벤처

기업부와 체결한 자생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해 미래차 관련 부품 협력사의 스마트공장 사업 자부담분을 지원한 것에 이어 올해도 자부담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든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통해 협력사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현대자동차그룹은 협력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산업혁신운동에 참여해 1250개 중소기업에 250억원을 지원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광주 지역 160개 중소기업에 32억원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K텔레콤 ‘원스토어’, MS 등서 투자유치

앱 마켓 시장 ‘대항마’ 자리잡아

SK텔레콤을 비롯해 국내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 등이 참여하고 있는 ‘원스토어’에 마이크로소프트, 도이치텔레콤이 ‘K 앱마켓 연합군’으로 참여한다.

SK텔레콤과 원스토어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도이치텔레콤의 투자전문회사 ‘DTCP (Deutsche Telekom Capital Partners)’로부터 ‘원스토어’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SKT가 KT, LGU+ 등 통신사들로부터 원스토어에 투자를 유치한지 3개월여 만에 해외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원스토어는 이번 투자로 성장 잠재력을 외부로부터 인정받음과 동시에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는 앱 마켓 시장에서 확실한 대항마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원스토어는 앱마켓 수수료를 과격인 하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등 개발사와 상생을 통해 성장해온 국내 2위 앱스토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와 DTCP가 지분투자를 하면서 원스토어는 국내·외 통신사 및 글로벌 T 기업이 주주로 참여한 대한민국 대표 앱마켓 지위를 갖게 됐다.

이번 투자 유치는 SKT와 마이크로소프트, 도이치텔레콤이 5G·클라우드·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전략적 파트너십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SKT와 원스토어는 마이크로소프트, 도이치텔레콤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게임 생태계 육성 ▲국내 게임 크리에이터와 콘텐츠에 대한 새 기회 발굴 ▲클라우드 협력 ▲글로벌 플랫폼 확장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채윤정 시전문기자 echo@

볼보 스위스 ‘자전거+모빌리티’ 모델 선택

XC40리차지 구매고객 대상
퍼블리바이크 연간 구독권 제공
국내선 연말까지 상품출시 전망

오는 2040년까지 완전한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세운 볼보자동차가 새로운 서비스를 내놨다. 바로 자동차와 자전거를 접목한 새로운 이동성 모델이다.

볼보자동차 스위스는 자전거 공유 서비스 ‘퍼블리바이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이동성 모델 구축을 위한 새로운 시도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을 통해 기후 중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볼보자동차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개인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교통 수단의 장점을 결합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이동성 모델을 제시한다.



볼보자동차가 스위스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이동성 모델 구축을 위한 새로운 시도 나선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스위스에서 순수 전기차 XC40 리차지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특별한 조건이 포함된 퍼블리바이크의 연간 구독권이 제공된다. 국내는 XC40 리차지의 출시에 맞춰 올 연말쯤 선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성운 기자

스포츠 모델부터 전기차 브랜드, 픽업트럭까지…

한국타이어 ‘글로벌 톱티어 기업’ 도약

한국테크노돔 중심 원천기술 개발
포르쉐·벤츠·아우디 등과 파트너십
46개 브랜드, 320개 종 타이어 공급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는 혁신적인 연구개발(R&D) 시스템을 기반으로 타이어 원천기술 개발 및 확보에 박차를 가해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톱티어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고성능 스포츠 모델부터 전기차 브랜드, 픽업트럭까지 모든 세그먼트를 아우르는 최상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31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R&D 역량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테크노돔’을 중심으로 타이어 원천기술 개발 및 혁신을 실현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포르쉐를 비롯해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등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세계 46개 완성차 브랜드 약 320여 개 차종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프리미엄 OE 시장을 이끌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의 대표 고성능 스포츠 로드스터 ‘718 박스터’와 최초 고성능 전기 스포츠카 ‘타이칸’은 물론 슈퍼 프리미엄 SUV ‘카이엔’과 ‘마칸’에도 신차용 타이



GMC 시에라 헤비듀티 차량 모습.

어를 공급하고 있다. 포르쉐의 고성능 스포츠 모델이 고속주행 시에도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최상의 성능을 전력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초고성능 타이어를 공급하며 글로벌 최상위 기술력과 럭셔리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입증했다.

이와 함께 독일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아우디의 SUV 라인업 중 최상위 모델인 ‘RS Q8’과 초고성능 쿠페형 세단 ‘RS7 스포츠백’, 슈퍼 왜건 ‘RS6 아반트’, ‘RS4 아반트’ 및 ‘RS5 쿠페’, ‘T T RS’와 플래그십 SUV ‘Q8’와 ‘뉴 아우디 SQ8 TDI’ 등 다양한 고성능 모델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해왔다.

또 메르세데스-벤츠의 프리미엄 SUV ‘GLC’와 ‘GLC 쿠페’, BMW의 플래그십 세단 ‘뉴 7시리즈’와 신형 레이스

카 ‘M4 GT4’, 전세계 3세대 한정형 고성능 모델 ‘미니 JCW GP3’ 등 독일 3대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의 대표 고성능 모델은 물론 혁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테슬라의 핵심 모델 ‘모델 Y’와 ‘모델 3’에도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프리미엄 브랜드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 외에도 이탈리아 완성차 브랜드 피아트와 대표 컴팩트 모델 ‘피아트 500’ 및 ‘피아트 판다’에 친환경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으며,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 제너럴 모터스(GM)의 미주지역 베스트셀링 픽업트럭 2021년형 ‘쉐보레 실버라도 헤비듀티’와 ‘GMC 시에라 헤비듀티’ 모델에 최상의 구동력을 갖춘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한화큐셀 ‘대한민국 솔라리그’ 후원

한화솔루션 그린에너지 사업부인 한화큐셀이 태양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미세먼지 문제와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기 위해 ‘제3회 대한민국 솔라리그’를 후원한다.

한화큐셀은 1일 솔라리그가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국시장 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에너지공단 주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일정은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서류접수를 시작해 오는 11월 시상식을 진행한다.

솔라리그는 한국 지자체와 시민 단체들의 태양에너지 보급성공을 겨루는

‘태양에너지 발전 리그’로 2019년 시작됐다.

독일 환경지원협회 등이 2003년부터 독일 내에서 태양에너지 발전량으로 순위를 매기는 독일 ‘솔라 분데스리가’의 한국형 사업이다. 한화큐셀은 지난해부터 솔라리그를 후원했다.

올해 솔라리그 공모대상은 17개 광역 지자체, 226개 기초지자체, 민간단체와 기업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